



냉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인경

저는 평생 청년들을 가르치고 전도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요즘 들어 '커밍아웃(coming out)'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본래 '커밍아웃'이란 말은 홍석천씨처럼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겨오던 동성애자들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고 말하며 '성적 커밍아웃(sexual coming out)'을 하는 것인데, 요즘 기독교 청년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겠습니다."며 '종교적인 커밍아웃(religious coming out)'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냉소주의의 현상들을 살펴보자.

한 청년은 "나는 예수님은 좋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났고, 다른 한 청년은 "나는 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과 한 패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청년은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싫습니다." 혹은 "나는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싫습니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습니까?

다른 한 청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는 이원론적인 영성 때문에 해마다가 대학생 시절에는 '신의 음성'을 듣는 등 신비주의에 빠졌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불과 7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에서 분리하는 이원론적 영성에 사로잡혀서 기도와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영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잘못 배웠고, 대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방언, 신유, 예언, 환상 등 각종 은사주의를 따라 다니다가 청년 시절에 배워야 할 영적 기초를 배울 기회를 놓쳤고, 청년이 되어서는 교회가 내가 갖고 있던 질문에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예 교회 다니는 것마저도 그만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제가 만난 이런 청년들만 있겠습니까?

'빛과소금교회' 청년들은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를 저에게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냉소주의에 빠진 청년들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거나 사소한 것들을 들어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 욕을 하거나 모든 것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목사들의 인격이 안 좋다.', '교회가 돈을 아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무렇게나 쓴다.’ 등 사소한 것들을 들어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 욕을 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¹⁾

교회를 한 번쯤 비판해 보거나 목사들에 대해 ‘뒷담화’를 해 보지 않은 청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제는 그런 비판과 뒷담에도 관심이 없고 아예 교회를 떠나 버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청년들을 방치했다가는 교회 앞문으로 들어오는 청년들보다는 뒷문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올까봐 몹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냉소적인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나,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도킨스(Richard Dawkins)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The God Delusion”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인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려져 있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탐구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인본주의에 불을 다시 지피므로 아무도 눈치를 채기 전에 유신론을 불태워 버리고 난 후에 결국 무신론의 재만 남기려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도킨스의 불장난에 영혼을 불태워 버린 사람이 없습니까?

2. 냉소주의의 원조는 솔로몬이다.

성경에도 여러 부류의 냉소주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다윗의 아내 하갈, 솔로몬,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등이 그들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듣고 장막 뒤에서 비웃었던 여자였습니다. 오스 기니스가 잘 지적했듯이, 사라는 하나님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충분히 크고 능력 있는 분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냉소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고 힘없는 신으로 믿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²⁾

오랫동안 솔로몬을 인생의 덧없음을 이해한 허무주의자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헛되고 헛

-
- 1) ‘빛과 소금 교회’(신동식 목사)의 청년들은 제가 쓴 ‘냉소주의’라는 글을 갖고 세미나를 한 후에, 냉소주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1)그들은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 모든 것을 상대적이고 다원적이라 본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전통적인 진리를 폄하 한다. 예를 들면 창조론이 진화론 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기원론의 지적 체계 중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2)그들은 핵심적인 가치들보다는 주변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기독교에 실망감을 표현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된 내용보다는 “목사님의 인격이 안 좋다.” “교회가 돈을 아무렇게나 쓴다.” 등 사소한 것들을 들어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 욕한다. 3)그들은 모든 것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나 고통 받는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과 세상에 무관심하다.
 - 2)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할 때, 옆에서 사라가 엿듣고는 “속으로 웃었다.(That's why Sarah laughed to herself.” 창세기 18:12)고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냉소주의의 시작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라가 웃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라의 자신의 늙음을 한탄했기 때문에 웃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불임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었던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가 그 문제를 잘 지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던 것은 그의 너무 작은 신관(神觀) 때문이었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 회의하는 용기, 복있는사람, p.87.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창세기 18:9-15) 1)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90 살이나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2)사라는 자신이 나이도 많고 생리도 더 이상 하지 않는 여자인데 어떻게 얘기를 낳을 수 있는냐고 속으로 웃었다. 3)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너도 얘기를 낳을 수 있다고 재차 설득하다. 4)사라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웃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나, 천사는 “네가 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몰아붙이셨다.

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서 1:1)라는 노래를 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는 허무주의에서 거쳤을까요? 아마 그는 허무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냉소주의의 원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도 경험했지만, 다음 사건을 보면 그가 허무가 깊다 못해 극심한 허무주의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시대에 당대의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냉소주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오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오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전도서 9:13-18)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이웃나라의 악한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 와서 성을 에워싸고는 싸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꿈쩍 없이 온 마을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워낙 악당으로 소문난 놈이 쳐들어 왔기 때문에 이 동네 동장과 군인들은 다 오줌을 싸고 벌벌 뜨느라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2) 다행히 그 성에 매우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총, 칼도 없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 악한 왕과 몇 마디를 나누었는데, 그 악한 왕이 전쟁도 해보지 않고 그만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자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지혜는 십만 군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강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 적군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런 지혜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느냐?”는 듯이 마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도 이걸 해도 해도 너무한 배신입니다. 왜지나 소를 한 마디 잡고 잔치를 해 줘야 할 텐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좌절과 허무감 그리고 냉소주의가 여기에서 출발한 듯합니다. 이것은 허무한 것을 넘어서 부조리에 대한 통탄이며 가슴앓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더욱 더 통탄을 금치 못할 사실은, 성을 살린 그 지혜자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망각되고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부자였다면 그 사람 앞에 줄을 서서 “감사하다.”며 잔치라고 열어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돈이 없거나, 아무리 똑똑해도 힘이 없으면 팔시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좌절감과 허무감을 넘어, ‘세상이 더럽게도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구나.’라는 탄식을 자아내게 만든 근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 제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 사건을 확대 해석한다면, 그 동네에는 지혜는 없지만 부자이고 마음씨가 고약한 놈이 하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고약한 놈이 이 모든 일을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를 “죄인”이라고만 언급 했습니다. 아마 동네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지혜자가 한 일은 잊어버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위협으로부터

건져냈으나 무시당하고, 마음씨가 고약하고 어리석은 높은 부자라는 이유로 동네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동네를 보았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1) 짝 쓸어버리고 싶다고요? 아마 솔로몬 왕도 이 동네를 보고 짝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2) 그냥 비웃고 싶다고요? 아마 솔로몬 왕도 “옛(X)같은 동네군.”이라든가, 요즘 애들 말로 “개 웃기는 세상이군.”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동네를 본다면, 짝 쓸어버리거나 불태워 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거 웃기는 세상이군.”이라고 말하며 비웃고 말겠습니까? 좌절과 실망과 분노도 지나치면 허무주의 혹은 냉소주의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냉소주의의 원인들은 무엇일까

(1) 냉소주의의 철학적 애인들은 누구일까?

솔로몬은 전도서 1:2에서 ‘헛되다’란 말은 무려 다섯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서 1:2) 여기에 ‘헛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 hebel’³⁾이란 말인데, ‘숨쉬다.’고 할 때의 ‘숨(breath)’이나 ‘수증기(vapor)’, ‘안개(mist)’, ‘연기(smoke)’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며, 이 단어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헤벨”을 ‘헛되다(vanity),’ ‘무의미하다(meaningless)’고 번역했고 이 말을 근거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주의를 부르짖었다고 생각했습니다.⁴⁾

2) 스테이플즈(W. Staples)는 “헤벨이 전도서 밖에서는 ‘무의미하다.’ 혹은 ‘공허하다’란 말로 사용되었지만 전도서에서는 ‘신비하다.’고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⁵⁾

3) 굿(E. Good)은 “헤벨은 ‘아이러니(irony)’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⁶⁾

4) 머피(R. Murphy)는 “헤벨은 전도자가 가치 판단을 할 때 여러 상황들을 경멸하거나 조소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⁷⁾

5) 현창학은 “헤벨은 ‘부조리한(absurd),’ ‘불합리한(the manifestly irrational)’이라는 말이다.”⁸⁾고 해석했습니다.

경멸하거나 조소하거나 하는 것도 냉소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부조리하다고 말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소리치는 것도 냉소주의적인 탄식은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현창학의 말대로 “헤벨”을 ‘부조리한(absurd),’ ‘불합리한(the manifestly irrational)’ 등의 의미로 번역한다면 전도서 4:4은 다음과 같이 읽

3) “헤벨”이란 말은 구약 전체에서는 59회가 나오고, 전도서에서만 38회가 쓰였다. 그러나 ‘헤벨’이란 말이 전도서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의 핵심 단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의 처음 구절인 1:1과 거의 마지막 구절인 12:8에서 똑 같이 쓰인 구절도 “하벨 하발림(vanity of vanities)”이라는 말인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번역된 말이다.

4) ‘헤벨’이 ‘헛되다(vanity)’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이 말은 ‘헛되고(vain),’ ‘덧없으며(fleeting),’ ‘무익하고(futile),’ ‘무의미한(meaningless),’ ‘목적이 없는(purposeless),’ ‘가치가 없는(worthless)’ 등의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그렇다. 1:14; 2:1,11,19(a); 4:16(a); 5:7, 10; 6:4,11,12; 7:6, 15(a); 9:9. “헤벨”을 ‘허무하다’고 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그런 예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1) 수고의 헛됨 2:19-21/ 수고자의 죽음과 지혜자의 죽음이 일반이다. 2) 명성의 헛됨 4:16/ 한 때는 유명한 사람도 곧 잊혀 진다. 3) 부의 헛됨 5:10/ 돈과 부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4) 부질없는 일의 헛됨 7:6/ 시간 낭비는 슬픈 종말을 몰고 온다.

5) 채은하, 전도서, 한국장로교출판사, 61-62

6) 채은하, 전도서, 한국장로교출판사, 61-62

7) 채은하, 전도서, 한국장로교출판사, 61-62

8) 채은하, 전도서, 한국장로교출판사, 61-62. 현창학, 구약지혜서연구,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164-166

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부조리하여’ 바람을 잡는 것이라.”(전도서 4:4) 여기에서는 ‘헛되어’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부조리하여’ 혹은 ‘불합리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 하거나 성공하려고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도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난채 하고 싶거나 친구들에 대한 시기심(猜忌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성공하는 것도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요지경이고 웃기는 짬뽕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헤벨”을 ‘부조리한’, ‘불합리한’이라고 번역할 경우에, 세상의 불의와 불법 그리고 죄악을 한탄하는 소리인 “X같은 세상”이란 냉소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으로 번역을 하던 모든 것이 헛되고 부조리한 세상의 이런 문제를 하루 종일 비웃거나 냉소를 보내거나 조소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냉소주의 빠져 세상을 비웃고 쓴웃음을 보내고 있다면,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은 병이 들 것입니다. 사실은 냉소주의는 전염성이 강한지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들마저도 비웃는 ‘시니컬 병’에 들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교회를 그만 두거나 자살을 하지 않으면서도 인생을 평생 비웃으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2) 냉소주의의 사회적인 친구들은 누구일까?

냉소주의가 가장 좋아 하는 친구들은 사회적인 원인들입니다.

1) 많은 기독 청년들이 냉소적인 되는 데는 교회의 타락상이나 목사들과 교인들의 추태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실수, 혹은 교회의 구조 악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섹스 스캔들에 휘말린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교회를 짓는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가장 부끄러운 말은 ‘공무원 사회나 일반 회사나 이단이 갖고 있는 문제를 목사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사 = 악한 공무원 + 부도덕한 사장 +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순결성과 정직성이 냉소주의를 치유해도 모자랄 판인데, 교회의 부조리와 부정직이 냉소주의를 부추킨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성공주의나 한탕주의도 냉소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는 노랫말처럼,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는 무명의 동갑내기 여자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하루아침에 유명 연예인들이 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갑자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국 여자 배우나 가수나 모델을 아십니까? 그들 중에는 연기력이나 가창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가슴 노출이나 야한 베드신이나 섹시 화보 등으로 출세를 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는 한탕주의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해 가슴을 쥐어뜯는 냉소주의자들이 속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

9) ‘헤벨’이 ‘부조리한’, ‘불합리한’이란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7,19,21,23,26; 3:19; 4:4,7,16; 6:2,9; 8:10,14; 11:8,10. 특히 전도서 8:10-14이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불합리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부조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회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연구 속제로 드립니다.¹⁰⁾

3) 기독교인들의 비관용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관용(tolerance)’이나 타종교와의 대화를 교회가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한 마디로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으나 기독교의 절대성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비관용적인 태도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는 복음의 핵심을 사랑이 없이 주장하거나 비본질적인 사소한 것에까지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도 씹니다. 그러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타협이나 종교다원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3) 냉소주의의 심리학적인 동료들은 누구일까?

냉소주의의 동료들은 심리학적인 원인들입니다. “동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냉소주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심리학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들어 본 원인 분석 중에는 미국 라브리의 딕 카이즈(Dick Keyes)의 분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¹¹⁾

1) 냉소주의의 첫째 동기는 ‘자기 방어(self-protection)’라는 것입니다. 냉소주의는 어떤 것에 낙심과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자신을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이다. 비웃거나 비꼬거나 빈정대거나 코웃음을 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나 분노나 자살로부터 지키려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만약 비웃지도 못한다면 자살이나 불같은 분노나 파괴를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방어로서의 냉소주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2) 냉소주의의 둘째 동기는 ‘도덕적 무관심(moral apathy)’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당당히 싸우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슬쩍 눈을 감아버리기에 가장 좋은 것은 비웃음이요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적어도 냉소주의자들은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이며, 그 실상을 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냉소주의자들은 비웃기는 하지만 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3) 냉소주의의 셋째 동기는 ‘엘리트주의(elitism)’ 혹은 ‘자기 우월감(pride)’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 즉 자기가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엘리트’라는 허위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비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시하게 보고 비웃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냉소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학벌만 아니라 얼굴, 몸매, 머리, 재물, 권세도 포함됩니다. 그 잘난 우월감 때문에 모든 것을 비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세 가지 심리적 동기 말고도, 인간의 이중성과 배신감에서 오는 허탈감의 반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본 사람들처럼 ‘부자에게는 아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인간의 징그러울 정도로 더러운 이중성과 배신감을 본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 그리고 냉소적인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가끔 친구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부하다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에는 막무가내로 대하는 인간의 간사성과 교활성을 본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깊은 자괴감과 분노만 느끼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매스꺼운 웃음도 짓겠습니까?

10) 한 정직한 대학생은 냉소주의가 되는 원인을 무식이라고 했다. “무식하고 어린 것을 감추려다 보니 어른들의 말에 무조건 비웃거나 냉소적이 된다.” 어떤 IVF 간사는 “신세대들이 고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심각하게 보지 않거나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모자라거나 ‘진실성의 결여(lack of sincerity)’에서 냉소주의가 시작된다.”고 했다. 또 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엉뚱한데 신경 쓰느라 진리 탐구에 대한 지적 탐구심과 호기심이 현격하게 떨어진데서, 즉 ‘호기심 상실(loss of curiosity)’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11) Dick Keyes, Seeing Through Cynicism, IVP

4. 냉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냉소주의의 해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인, “씩 쓸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비웃으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현창학 교수는 솔로몬이 회의주의(skepticism) -> 불평(complaint) -> 상담(counsel)이란 3단계를 거쳐 문제를 풀어준다고 보았습니다.¹²⁾ 저는 비슷하지만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3단계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실 수용(acceptable) -> 본분 충실(faithful) -> 일상 향유(enjoyable)가 그것입니다.

(1)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지혜로운 해법은 다름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제대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현재 어느 곳을 보더라도 안 썩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이 부패했고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들, 이를테면 국가도 학교도 회사도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도 그렇고, 그 조직 구성원들까지 속속들이 타락한 것이 사실이며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청년들이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은 헛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만 아니라 평생 정치를 했던 솔로몬도 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왕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마저도 나라 구석구석이 “구부러지고 뺄어져서.”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도서 1:15에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네 힘으로는) 구부러진 것을 펴 수가 없고, 없는 것을 셀 수가 없지 않는가!”(전도서 1:15, 공동번역)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안 구부러진 구석은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7:13에서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Consider what God has done: Who can straighten what he has made crooked?)”라는 했는데, 여기에 “굽었다(crooked).”고 하는 것은 ‘구부러지고 부패하고 부조리한 것’을 말하는데, 인생의 고통이나 역경, 또는 인간이 동의하기 힘든 환경이나 부조리한 모든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15이나 7:13의 두 번째 메시지는 “구부러지고 굽은”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꺾거나 고치거나, 세거나,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14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에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nothing can be added to it and nothing taken from it, NIV).”라는

12) 현창학, 구약 지혜서연구, 171, 172. 현창학은 솔로몬이 심각한 좌절과 비웃음과 평가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의 해법, 즉 “받아들이라.”고 하는 ‘상담(counsel)’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도표를 그렸다.

성격과 목표	핵심 개념	메세지
회의주의(skepticism)	헛됨(vanity)	“헛되다.”
불평(complaint)	부조리함(absurdity)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상담(counsel)	순응(resignation)	“받아들이라.”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감히 더 하거나 감하거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뭘 고치거나 펴려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부조리를 덮어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라니 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 지혜이며, 그가 본 그 작은 동네의 가난한 지혜자가 가졌던 “무기보다 더 강한 지혜”입니다. (전도서 9:18) 예수님도 겐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사형 당하기 직전에, 인간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써 최고 수위의 갈등과 위기 앞에서 같은 지혜를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라는 것도 같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42)

즉 인간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안은 빌라도의 악한 재판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지, 베드로처럼 ‘칼’로 짝 쓸어버리는 것이거나 혹은 천군천사들을 불러서 잡으러 온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아무리 분통이 터지고 허탈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지만, 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거나 비웃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고 비웃음을 거칠 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순응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고칠 수도 없는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순응한다는 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미국 칼빈대학교의 존 스택(John Stek) 교수가 지적했습니다.¹³⁾ 당신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가?(Are you accepting the present state as it has been shaped by God's appointments?) 저는 그것을 좀 더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자기 실력, 얼굴, 몸매, 업무, 건강, 부부관계, 자식, 동료,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자기가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와 목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2) 내가 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이나 초보자들이나 신출내기들이 종종 빠지는 실수는 “이 조직은 다 썩었으니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고치겠다.”라고 하는 “짜깁이” 혁명 정신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군대를 동원해서 그 동네를 짝 쓸어버리거나 불질러 버렸겠지요?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뽑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런 방법을 원했다면 이제라도 천군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장 짝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7:13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Consider what God has done: Who can straighten what he has made crooked?)”라는 했는데, 이 말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굽었다(crooked).”고

13)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170-177.

하는 것은 모든 '구부러진 것'을 말하는데, 인생의 고통이나 역경, 또는 인간이 동의하기 힘든 환경이나 부조리한 모든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굽은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도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을 촉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굽히셨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펴 수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의 역설인데, ‘우리는 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사람이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전도서 3:14)

여기에 “하나님이 행 하신다(everything God does).”는 특이한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the God can do everything)’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비웃었던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전도서의 다른 곳에서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전도서 9:1, 전도서 7:24)라는 말씀도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의 행위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네같이 어리석은 놈이 뭘 고치겠느냐? 경거망동하거나 까불지 말라.”는 말이 아닐까요? 냉소주의는 하나님이 큰 분인 줄을 모르고 경거망동할 때 생기는 엘리트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고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네 본분을 다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전도서 12:13-14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본분이니라(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NIV)”이라는 말은 “이것이 전부니라.(for this is whole of man, ASV)”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본분에는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청년들의 본분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전도서 12:1). 청년들이 기억할 것은 오늘날 내가 잘 된 것은 내가 잘 나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어른들의 본분은 흠은 흠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전도서 12:7) 3)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전도서 12:13)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 물어 보세요. “의인이나 지혜자도 다 못 고치는데, 내가 꼭 해야 하는 본분은 무엇일까?” 미국 칼빈대학교의 존 스택(John Stek)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들들 볶고 있는 것은 없는가? Don't you vex yourself with unrealistic goals?” 여러분은 지금 너무 거창하고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같이 자신을 볶음밥처럼 들들 볶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세치 혀로 지구 전체를 다 훑아 보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가 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하라.”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무기보다 더 힘 있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3) 일상생활을 순간순간 즐겁게 보내라.

냉소주의자들만 아니라 ‘포도’나 유명 배우들처럼 “한 탕”을 노리는 세상에서는, “큰 것을 한 탕 잘 해서 뜨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한 방에 모든 부조리하고 헛된 세상을 뒤집어엎어 버리거나, 한 탕에 모든 환경을 싹 바꾸어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한 탕을 날릴 날을 기다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한 탕을 잡으려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소소한 작은 것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갑자기 일상생활을 즐기라고 말할까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혹은 “세상은 전부 부조리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 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전도서 2:24),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전도서 8:15, 표준새 번역), “맛있는 음식을 사먹고, 포도주도 한 잔 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고, 아내와 섹스도 하라.”(전도서 9:7-10)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인생이 아직 살만한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를 즐기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달 프고 힘들고 지치고 한탄스러울 때는 오늘 누릴 수 있는 조그마한 것만이라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단 하나 밖에 없는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정말 헛(X) 같고, 세상도 정말 허무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뼈 속 깊이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절박한 순간을 즐기는 길 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교권적 부패와 부조리와 싸우느라 목숨을 걸어야 했던 루터(Martin Luther)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장래 염려 때문에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의 비밀입니다.¹⁴⁾

전도서 9:7-10이 가장 신나는 구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 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 “전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즉 고통이 극에 다다랐다고 생각될 때는 누구나 화려한 탈출이나 깜짝 놀랄 만한 큰 사건이나 한 탕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큰 이벤트나 화려한 한 건을 꿈꾸지 말고, 현재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이런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비상 탈출구’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해법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이 되겠지만 ‘작은 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지독한 허무주의자들과 냉소주의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 탈출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소주의자 솔로몬이 깨달은 “무기보다 더 무서운 지혜”는 바로 다음과 같은 사소한 진리입니다.

14) 솔로몬은 최고의 쾌락을 누린 사람이지만 고통의 극단에서 찾는 작은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들이 있다. 전도서 3:12-13; 3:22; 5:18-20; 8:15

1)“비록 고기가 없더라도 오늘 밥상에 올라온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한 잔 하고 자살 하지 말라.”

2)“비록 헌옷이라도 좋으니 장롱 밑바닥에서 꺼내어 깨끗하게 빨아 입고 벗을 한 번 내어보아라.”

3)“비록 머리카락이 몇 개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아 있는 동안에 최고 비싼 크림, 크림을 사서 한 번 발라 보아라.”

4)“비록 네 아내와 네 남편이 늙어가고 병도 많지만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 서로 즐기라.”

5)“확끈한 한 건을 노리며 뜯 구름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늘 작은 일상을 즐겨라.” 이것이 폭탄보다 힘 있는 지혜입니다.

마치는 말씀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지독한 냉소주의 속에서 온갖 고민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내성적 질문과 싸우거나 조소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조금씩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할 수 있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빨을 좀 깨물고 기다려야 할 문제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지혜를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는다면 전도서의 지혜 중에 하나만이라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¹⁵⁾

냉소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최고의 지혜요 해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것은 현실 수용(acceptable) -> 본분 충실(faithful) -> 일상 향유(enjoyable)입니다. 1)모든 것이 구부러졌고 부조리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고칠 수도 없는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2)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하나만이라도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어떨까요? 3)화려한 이벤트니 한탕주의에 빠지는 대신에 소소하고 작은 일상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도 종교적 커밍아웃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를 떠나 천주교로 가거나 무신론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를 떠난 일부 청년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대학교 안에 그런 동아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

15) 전도서의 대표적인 12 가지 지혜이다.

하나님이 없는 공부는 절망과 허무로 끝난다. 1:7,8

하나님이 없는 유명세는 결국 슬픔을 가져온다. 1:16-18

하나님이 없는 쾌락은 실망만 불러온다. 2:1,2

하나님이 없는 노동은 혐오와 분열을 불러일으킨다. 2:17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공허감을 불러온다. 3:1-9

하나님이 없는 영생은 불만족을 가져온다. 3:11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울한 마음과 좌절감을 부추긴다. 4:2-3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공포심을 가져다 줄 뿐이다. 5:7

하나님이 없는 부와 재산은 재난을 불러온다. 5:12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좌절과 부조리로 끝난다. 6:12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다. 8:17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지독한 절망으로 치닫게 된다. 11:1-8

다. 만약 냉소주의의 밤이 더 깊어지면 ‘안티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인본주의가 판을 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아직은 냉소주의의 밤이 그리 깊지 않았습니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냉소주의를 더 연구하여 다양한 극복 방법도 더 찾아보아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 한국교회가 냉소주의를 시시한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기독교의 쇠퇴를 재촉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